K팝, 방탄소년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K팝 세계관 시대 기폭제…대중문화를 '파인아트' 경지로
UN·백악관 연설 통한 선한 영향력…사회적 책임 고민도

K팝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비틀스'가 선봉이 돼 영국 밴드가 북미 음악시장을 장악한 '브리티시 인베이전'과 비교되는 'K팝 인베이전'의 주역.

'21세기 비틀스'로 통하는 이 팀은 K팝 아이돌의 미학적 성취를 통해 세계 주류 음악 시장의 공인을 이끌어낸 동시에 음악 산업에 대한 열등감을 덜어줬다. 오는 13일 데뷔 10주년을 맞는 이 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다.

◆힙합 아이돌로 출발

방탄소년단은 근래 주로 팝 댄스 풍의 곡을 선보였지만 2013년 6월13일 데뷔(첫 싱글 '투 쿨 포 스쿨(2 COOL 4 SKOOL)' 발매일과 첫 쇼케이날은 2013년 6월12일이지만 첫 무대를 선보인 6월13일을 데뷔일로 한다)한 이후 초창기 정체성은 힙합이었다. 특히 리더 RM은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기 전 언더그라운드 힙합 크루 '대남협'(대남조선힙합협동조합)에 속해 있었다. 방시혁 하이브(HYBE) 의장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 RM을 주축으로 한 힙합 그룹을 구상했다. 슈가 역시 고향인 대구를 기반 삼은 힙합크루 'D 타운(D Town)'에서 '글로스(Gloss)'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어거스트 디라는 슈가의 솔로 활동명은 슈가가 예전에 가사로 썼던 'DT 슈가(Suga)'를 거꾸로 배열한 것이다.

방탄소년단과 꾸준히 작업해온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의 피독(강효원) 수석 프로듀서 역시 힙합에 대한 애정을 표해왔다. 피독이라는 활동명도 프로듀서(Producer)와 미국 힙합 거물 스눕독(SnoopDogg)의 '독(Dogg)'을 합쳐 만들었다.

피독과 RM·슈가 그리고 제이홉이 가사 작업에 참여한 방탄소년단 정규 1집 '다크&와일드(DARK&WILD)'(2014) 수록곡 '힙합성애자'(Hip Hop Phile)는 제이-지(Jay-Z), 나스(Nas) 등 힙합 거물은 물론 "클래식한 일매틱(Illmatic)과 '도기스타일(Doggystyle)"도 언급돼 있다. '일매틱'은 나스의 데뷔음반이자 힙합계의 전설적인 명반 제목이다. '도기스타일'은 미국 힙합 거물 스눕독의 데뷔 음반(1993) 제목이다.

힙합계의 전설과 명반들을 연달아 언급한 '힙합성애자'는 데뷔 초창기 힙합 아이돌 그룹을 표방한 방탄소년단과 이들을 프로듀싱한 피독의 힙합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곡으로 평가 받는다.

2014년 미국에서 본토 힙합을 배우겠다며 현지로 떠난 방탄소년단의 여행기를 다룬 엠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가 현지에서 팬덤을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하기도 했다. 하이브가 올해 미국 유력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QC Media Holdings)'를 인수한 건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셈이다.

이후 방탄소년단의 분기점이 된 건 '화양연화' 시리즈. 2015년 4월 발매한 미니 3집 '화양연화' 파트1의 타이틀곡 '아이 니드 유'로 국내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 첫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11월 발매한 미니 4집 '화양연화' 파트2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71위를 차지하며 SM·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아닌 K팝 팀으로는 처음 해당 차트에 진입하는 기록을 썼다. 이후 모두가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은 K팝을 넘어 빌보드에서 새 역사를 썼다.

'빌보드 200' 정상에 6개의 앨범을 자리하게 했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6곡(지민 솔로곡 '라이크 크레이지' 포함하면 7곡)을 올렸다. 두 차트에서 모두 K팝 가수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핫100' 1위는 지금까지 K팝 팀 중 유일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2018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처음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이후 2020년 11월까지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맵 오브 더 솔 : 7' 'BE'로 연거푸 정상을 차지했다. 2년6개월 만에 앨범 5장을 연이어 빌보드 200 정상에 올린 기록은 비틀스(2년5개월) 이래 최단기간이다. 방탄소년단이 21세기 비틀스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미국 최대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 3년 연속 노미네이트됐고, 현지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UN·백악관 연설 통한 선한 영향력…사회적 책임 고민도

또 방탄소년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선한 영향력'이다. UN연설에서 인종·국경을 넘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만남에선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북미 증오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덕분에 방탄소년단은 'K팝 외교관' '글로벌 리더'라는 수식을 달고 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한창 음악을 즐겨 할 나이인 20대에게 버거웠던 것도 사실이다. RM은 지난해 말 미국 유명 음악잡지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사회적 행보를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시안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됐다. 나 스스로 '과연 난 좋은 사람인가? 이 모든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겼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은 10주년을 기념한 회고록 '비욘드 더 스토리(Beyond The Story): BTS의 10년 기록'을 아미의 생일인 7월9일에 한국과 미국 등지에 동시 발간할 예정인데, 여기에 관련 이야기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더 대단한 점은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계속 전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3년간 전 세계를 괴롭힌 팬데믹 기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발표한 영어 노래들인, 이른바 희망 3부작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가 그 증명이다.

조혜림 기획자는 "방탄소년단은 이 곡들로 세상 모두를 위로하고 우리의 세상은 모두가 함께하기에 존재하고 이뤄짐을 이야기했다. 청춘의 아픔, 유혹과 절망 속에서 성장하고 자신을 찾아가던 그들은 이제 세계의 희망을 기원하고 전하는 존재로 성장했다"고 들었다.

◆순차적인 군복무, 챕터2 시작…아미와 멤버들의 '테이크 투'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작년 말 진과 올해 4월 제이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대한 뒤 약 3년의 단체 활동 공백을 가지고 2025년에 다시 완전체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멤버들이 모두 군복무를 끝내면, 장수 그룹의 발판을 다지게 된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나면 팬덤 아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명실상부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이그룹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예년 만큼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선례가 됐지만 세계적으로 위상을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은 충분히 다른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다. 미국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국민가수 나훈아·남진이 군대를 다녀온 뒤에도 인기를 이어간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10월 부산콘서트에서 30, 40년 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군 입대로 인한 공백을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또 다른 앞날을 기약한 것이다. 아미들도 충성도를 충분히 보여줬다. 애초 진과 제이홉의 입소 현장에 팬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멤버들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안전과 다른 장병들을 위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따르는 '성숙한 팬문화'를 보여줬다.

'범죄도시3' 현충일에도 한 방…1000만 향해 성큼

개봉 일주일만에 기록…1000만 가시권에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일주일만에 600만 관객을 넘기며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최고 흥행작이 됐다. 새 '트랜스포머' 영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은 '범죄도시3'를 넘지 못하고 2위로 출발했다.

'범죄도시3'는 현충일 휴일이었던 6일 84만 2189명이 봐 올해 국내에서 공개된 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이 찾은 작품이 됐다. '범죄도시3' 이전 최다 관객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552만명)이었다.

'범죄도시3'는 개봉 7일차에 600만 관객 고지를 밟으면서 1000만 관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현재 이 흥행 속도는 역대 흥행 1위인 '명량'(1761만명)과 같다. 흥행세는 개봉 2주차에도 꾸준히 이어질 거로 전망된다. 7일 오전 7시30분 현재 '범죄도시3' 예매 관객수는 약 16만명으로 2위인 '트랜스포머:비스트의 서막'(약 4만명)을 멀찌감치 앞서고 있다.

'범죄도시3'는 2017년 '범죄도시', 2022년 '범죄도시2'로 이어진 '범죄도시' 시리즈 세 번째 영화다. 서울 광역수사대에서 일하게 된 형사 마석도가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일이 신종 마약 유통과 관련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마동석과 함께 이준혁·이범수·김민재·이지훈·전석호·고규필 등이 출연하고,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도 나온다.

에이티즈, 오는 7월 사우디 단독 콘서트 개최

슈퍼주니어·방탄소년단·블랙핑크 이어 K팝 그룹 중 네 번째

그룹 '에이티즈(ATEEZ)'가 4세대 K팝 그룹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단독 콘서트를 연다.

7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티즈는 오는 7월2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슈퍼돔에서 월드 투어 '더 펠로우십 : 브레이크 더 월(THE FELLOWSHIP : BREAK THE WALL)' 하나로 공연한다.

특히 제다 슈퍼돔은 지난해 6월 K팝 페스티벌을 통해 방문한 적 있었던 곳이다. 약 1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에이티즈의 이름을 내건 단독 콘서트를 열며 그간 급성장한 현지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KQ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에이티즈는 지난해 10월 '케이콘 2022 사우디아라비아(KCON 2022 SAUDI ARABIA)'에 이어 이번이 사우디아라비아 세 번째 방문이다.

특히 '슈퍼주니어'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K팝 간판 그룹들에 이어 현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 네 번째 K팝 아티스트가 됐다.

지난해부터 에이티즈는 두 차례의 월드투어 '더 펠로우십 : 비기닝 오브 디 엔드(THE FELLOWSHIP : BEGINNING OF THE END)'와 '더 펠로우십 : 브레이크 더 월'을 통해 급성장했다. 약 1년2개월 동안 서울, 미국, 일본, 유럽을 순회하며 총 43만 명의 팬들을 만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에이티즈는 데뷔 후 첫 아시아 투어와 남미 투어 개최 소식도 전했다.

한편, 에이티즈는 오는 16일 오후 1시 미니 9집 '더 월드 에피소드 2 : 아웃로우(THE WORLD EP.2 : OUTLAW)'를 발매한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빌보드 '핫100' 23위

미니 5집, '빌보드 200' 18주 진입

영미권 싱글차트에 균열을 내고 있는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K팝 걸그룹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Cupid)'는 10일 자 '핫100'에서 23위를 차지했다. 지난주보다 3계단 하락했으나 해당 차트에 11주간 머물며 해당 차트 K팝 걸그룹 최장 진입 기간을 늘렸다.

'큐피드'는 빌보드 내 글로벌 차트에서도 여전히 강세다.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글로벌(Excl.US)'에서는 지난주에서 1계단 하락해 2위에 올랐다. 전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200'에서는 3위를 지켰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자체 최장기 차트인 기록을 연거푸 경신 중이다.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이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전주 대비 14계단 반등한 120위에 올랐다. 지난달 13일 자 '빌보드 200'에서 190위를 차지했던 이 앨범은 4주 연속 역주행하며 약 한 달 사이에 순위를 70계단 끌어올렸다.

특히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18주째 '빌보드 200'에 머무르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K-팝 4세대 아티스트 최장기간 차트인 기록을 다시 한 번 새로 썼다. 특히, '빌보드 200'에서 단일 앨범으로 18주 연속 차트인한 K-팝 남성 아티스트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후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이다.

단체 활동 공백기를 갖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팀 또는 솔로로서 여전히 빌보드 내 여러 차트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민이 지난 3월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앨범 '페이스'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로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45위, '글로벌 200' 66위에 자리하며 10주 연속 차트인 했다.

지민이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OST '에인절 파트원(Angel Pt. 1)'(Feat. Jimin of BTS, JVKE & Muni Long / FAST X Soundtrack)은 '랩 디지털 송 세일즈' 7위, 'R&B/힙합 디지털 송 세일즈' 31위, '글로벌(미국 제외)' 31위, '글로벌 200' 45위에 올랐다

진은 작년 10월 발표한 첫 솔로 싱글 'ㄷ 애스트로넛(The Astronaut)'으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 3위로 깜짝 재진입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은 세부 '앨범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톱 앨범 세일즈'에서는 슈가의 솔로 앨범 'ㄷ-데이(D-DAY)'가 17위, 지민의 '페이스'가 35위, 지난 2020년 발매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세븐(MAP OF THE SOUL : 7)'이 62위에 올랐다. '톱 커런트 앨범'에서는 'ㄷ-데이'가 16위, '페이스'가 25위에 랭크됐다.

'월드 앨범'에서는 'ㄷ-데이'가 6위, '페이스'가 8위, 작년 발매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가 10위, '맵 오브 더 솔 : 세븐'이 11위, 2018년 발매된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가 13위에 자리했다.

대세 그룹 '세븐틴'(SVT)은 미니 10집 'FML'이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64위를 차지하며 해당 차트에 5주 연속 진입했다. 또한, 'FML'은 '월드 앨범' 차트에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차트와 '톱 앨범 세일즈' 차트에서는 나란히 2계단 반등, 3위를 차지하며 인기 롱런을 이어 가고 있다.

K팝 4세대 간판 걸그룹 '르세라핌'의 정규 1집 '언포기븐(UNFORGIVEN)'은 '빌보드 200' 66위를 차지하면서 4주 연속 차트인했다. 이로써 르세라핌은 4세대 K-팝 걸그룹 중 '빌보드 200' 최장기간 차트인 신기록을 세웠다.

또 '언포기븐'은 '월드 앨범' 2위, '톱 앨범 세일즈'와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7위 등 음반 차트에서 전주 대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최상위권을 지켰다. 르세라핌은 '아티스트 100'에서도 상위권인 57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언포기븐'에 실린 두 곡이 빌보드 내 세부 차트에서 인기다. 타이틀곡 '언포기븐'은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40위, '빌보드 글로벌 200' 76위에 안착했다.